세계일보 | SEGYE.com

입력 2015-10-19 16:00:57, 수정 2015-10-19 16:00:57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제1회 행복 나눔 콘서트' 성료

강남구와 함께 강남역서 자살 예방 위해 다양한 문화 공연 및 강연 개최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은 공연과 강연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인 '행복 나눔 콘서트'가 지난 17일 강남역 11번 출구 엠-스테이지(M-Stage)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와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KAM(Kingdom Army Ministry)과 울타리 포럼이 공동 주관하며 OCEAN SPRINGS, TCC, 자살예방한국연맹이 후원한 이번 콘서트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과 어른들을 위한 '자살 예방 캠페인'이다.

총 4부로 진행된 이 행사는 개그맨 오지헌 씨와 카메룬 출신의 메르젤 졸리오(Mergel Johlio) 씨가 사회를 맡았으며, 4회의 공연과 3회의 강연이 번갈아 열렸다.

매 공연 사이에는 자살예방한국연맹 회장 박상회 박사가 각각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 생명',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아니한가', '나의 행복 찾기'를 주제로 10분씩 강연해 자살에 대한 정보와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콘서트를 통해 강남에 밝고 건강한 문화와 수준 높은 공연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축사했고, 강덕영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이사장은 "한 해 동안 1만 5천 명이 자살로 마감하는 현실을 보며, 대한민국이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나이트문화재단은 다음달 14일에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의 권장희 소장을 초빙해 '제2회 행복 나눔 콘서트'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건전한 성문화', '뮤지컬 거리 공연' 등의 주제로 행사를 이어가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연과 강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